



자기집에서 화재발생

대피가 어려운 경우 : 구조요청

📍 피난설비(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)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 ●

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내 피난 설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

- 대피공간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화염·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, 경량 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 가능(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)

▶ **아파트 세대내부 피난설비** ◀



- (비교) 1. “대피공간”이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㎡의 공간
 2. “경량칸막이”란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화재시 쉽게 부수고 대피 가능
 3. “하향식피난구”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 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

피난 사례 ✎

- ▶ 2016. 2.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7층 주방에서 화재발생 시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
- ▶ 2019. 9. 전남 광양시 44층 통로에서 화재 발생 시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

📍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,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.

-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발코니로 이동하여 외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,
-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방 내부로 유입되는 연기(유독가스)를 막기 위해,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문 틈새를 막는다.